

신문과 방송 편집의 자주적 심의 체제 육성 권장과 병행하여 중재의 위상이 설정되어야 하며 필자의 견해로는 대중매체의 사실 보도 중심의 언론 뿐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매체 표현 실상에 부합하는 제반 표현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매체윤리심의원과 매체중재원의 기능은 앞으로 보다 더욱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앞의 도표 참조). 방송위원회가 정부 기관화하면서 심의 기능은 분리하여 매체윤리심의원이 독립 공동기관으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익에 반하는 다양한 매체의 사법적 규제 문제를 어떻게 보다 총괄적으로 체계화해야 할 것인가에 양자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

VI.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언론관의 설정과 함께 언론이 가져야 할 윤리성에 상응하는 규제 체도를 모색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언론에 근대적 언론의 비판적 수용과 함께 새롭게 형성되는 사이버 시대의 공론장의 가능성을 동시에 배려하자는 의도이다. 이러한 구도에 대한 윤리적 규제 양식은 복합적 측면을 내재하게 되는데 이를 사회문화적 여건에 맞게 분산하여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열린 사회의 구축과 보다 원만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한국 사회는 개항이후 약 100년이라는 세월동안 산업화의 실험장이 되어 왔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서양식 근대화의 과정에 토착적 전통의 상당한 단절과 서구적 산업사회 제도 문화의 비판 없는 수용이 대량으로 이루어져 역사적 실험장이 되기도 했다. 새로운 100년의 시작은 전통의 재건과 산업화의 한국적 정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학기술적으로는 디지털과 사회적으로는 지식 정보화라는 새로운 변혁의 순환기 초기로 진입하고 있다. 지식 정보화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기술은 기존 매체문화의 질서에 본질적인 혁명을 예고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새로운 제도적 질서 모색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개화기 이후 서구적 철학과 사상을 수용하고 새로운 제도문화를 구축하는 과정에 근대화라는 생태적 풍토를 배경으로 한국의 근대 언론상은 정립되어 왔다. 그러나 그 언론이 토착적 동질성의 전승과 외래적 전통을 규합하려는 과정에 정치적 사회문화적 질곡의 시대가 있어 왔고 오늘날에는 축소지향적 규모로 언론이 규정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인간 중심의 고전적 언론의 전통이 희석된 것과 아울러 헌법에 규정한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와 실제 실용화되고 있는 언론상은 상당한 거리가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신문 방송의 자유처럼 축소 해석되어 버리는 사례도 빈번하게 직면하게 된다. 대중매체=언론이라는 등식으로 사회적 인식이 굳어져 가는 경향마저 없지 않다.

한국 언론은 대중매체 중심의 표현 현상 뿐 아니라 공중의 자유 표현(free expression)이나 언론 언론(free speech)을 포함한 포괄적인 영역이 되어야 함에 틀림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축소 인식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화가 진행되어 특정 매체를 중심으로 언론이 논의되고 편착된 형국으로 되고 있다. 대중매체의 현상을 중심으로 언론을 설정하는 시각은 지나치게 언론 언론을 등한시 해버린 경향이 있고 이러한 발상은 한국의 언론 규제 제도의 정립에도 문제가 된다.

구어 중심의 언론 언론을 기반으로 하고 그러한 철학적 토대 위에 대중매체 또는 인터넷 공론까지 언론의 영역으로 설정함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가장 원형이 되며 개인이 향유하는 freedom of speech과 mass media의 상호 관계에 대한 원만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기인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따른 매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미흡한 점도 원

인이 된다.

이를 다시 정립해보면 언론의 구성은 제 1단계 언어 문자의 공적 표현, 제 2단계 대중매체의 표현, 제 3단계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의한 통신 중심의 공적 표현 등으로 복합적 구성이 이루어진다.

언론 언론과 대중언론 및 새로운 사이버 언론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올바른 사회적 위상 설정과 아울러 윤리적 규제 장치가 탄력성을 가질 때 바람직한 언론 문화의 형성이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 문화와 언론의 관계를 생태 구성적 관점에 착안하여 기존 언론의 전통을 복원하고 새로운 언론 가능성을 수용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규제 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의 미래를 모색해보는데 접근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첫째는 언론의 영역 설정의 재시도에 의한 서양 지향적 환상에서 벗어나 한국적 주체성을 살린 언론관의 설정이 필요하다. 언어 문자 중심의 언론 언론의 전통을 복구가 필요하다.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 언론의 등식의 기존 언론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양한 매체의 개발은 모든 매체가 언론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님을 입증해주고 있다. 예컨대 모든 방송이 언론일 수는 없다. 물리적 매체 현상 중심의 언론 규정이 아니라 그 매체가 수행하는 표현 기능에 맞추어 언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중매체 중심의 언론 규정은 언론통폐합의 잔재로 판단된다.

둘째는 서구적 근대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 철학에 대한 재검토와 우리 사회가 누려온 동양적 전통의 재발견으로 인간과 사회의 상호 관계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언론 규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것이 모두 공동의 선이 될 수는 없다. 기존 대중매체 중심의 언론이 사회적 정의를 표방하는 활동을 목표로 제도화하고 이에 따른 윤리적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왔으나 상당한 부분 굴절되고 인간에게 끼친 피해도 심각하다. 서양적 사회 철학의 이상이 결국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에게까지 원만한 실천으로 완성되지 못한 소치이다. 대중매체가 조장하는 집단 이기심이 언론의 정의를 굴절시키고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자기 이해 편향적 발상이 결국은 인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윤리적 규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는 언론의 위치는 인간과 사회의 상호 관계에서 규정되는 사회철학을 배경으로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100년간의 우리 언론 제도는 사회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사회성이 근대화 이전에는 그만큼 취약했다는 의미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개별성이다. 미래의 언론은 이 양자를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사회 철학을 배경으로 정립되어 가야 한다.

넷째는 한국 언론이 가지는 표현성과 산업성의 두 가지 축으로 한 체질 개선과 더불어 규제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표현성은 편성 편집 등 의사를 표현하는 활동이며 산업성은 경영 경제적 활동이다. 한국은 대중매체의 표현성인 언론 기능을 강조한 나머지 산업성의 규제는 아주 낙후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사업자는 자체내부의 조직과 협회의 공동 활동으로 규제체제를 개선하여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표현성의 규제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공공 규제 장치가 되어야 한다면 산업성은 정부의 산업 정책과 일치하는 사업 규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앞으로의 대중매체는 언론과 산업의 특성을 동시에 수용한 제도적 정착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언론중재위원회는 대중매체의 표현 활동이 유발하는 피해에 대한 개인의 “구제”라는 입장에서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미래의 매체 문화 구도 개편과 인간의 사회적 표현 활동 다양화에 따른 “언론 자유”의 새로운 해석과 위상 설정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필자는 매

체 중재원을 앞의 다원적 분산 규제 모델에서 제안한 바 있다. “사실 보도”, “사실적 주장”이라는 규정이 내재하는 의미가 매체와 장르에 따라 가지는 의미를 “표현” 차원에서 재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다수의 보호 차원과 공익의 차원에서 중재 기능의 확대 연구와 제도화도 바람직하며 매체윤리중재원(가칭)과 기능 조정도 검토해볼 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경수(2000), 언론이 조선 왕조 500년을 이루었다, 서울, 가람기획.
- 박권상/고명식(역)(1965), 근대국가와 언론의 자유, 서울, 을유문화사.
- 김민환(1996).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출판.
- 김용구(1995). 언론사상연구, 서울 : 나남출판.
- 박기성(1993a). 한국언론 계보화와 불교 언론,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연구 I. 한국언론학회편. PP. 318-342.
- 박기성(1993b). 한국개화기 언론의 이원적 계보, 하이제 최정호박사화갑기념논문집, 최정호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PP. 189-214.
- 박기성(1995). 한국방송사, 한국방송총람, 방송문화진흥회.
- 박기성(1999). 정보구성이론, 언론정보학연구. 창간호. PP. 129-158.
- 박기성(2001), 텔레비전 생태와 규제 제도, 언론정보학연구, 특집 대구 경북언론학회.
- 박기성(2000), 한국언론계보론, 언론정보학연구, 창간호.
- 박정규(1982). 조선 왕조 시대의 근대적 신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준석(1994). 조선 초기 대간의 언론 관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균관대학교 대중문화연구원(1958). 율곡전서(全) 공론 언론 언론
- 장지연(1956). 위암문고. 국사편찬위원회
- 요시노 사꾸조(1919.4.), 조선에서의 언론 자유, 중앙공론. 동경. PP. 92-94.
- 원효. 열반종요. 한국불교전서, 동국대학교 출판부-----
- 유길준(1995). 유길준 전서(IV 정치경제편, 서울 : 일조각(유길준전집편찬위원회편).
- _____. 유길준 전서(II 문법 교육편). 서울: 일조각(유길준전집편찬위원회편)
- 이동준(1975). 16세기 한국 성리학파의 역사의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동양철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희(1993). 조선조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나남출판.
- 이병도(편)(1967). 국역 율곡전서정선, 율곡선생기념사업회.
- 이석호(1993). 한국 근대 언론에 이어진 전통적 언론 사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언적(1967). 회제선생전서(상). 옥산문헌간행회

조맹기(1997). 한국언론사의 이해, 서울 : 서강대학교 출판부.

채백(1996). 독립신문의 언론사상, 언론과 정보, 부산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제2집.

정대철(1999). 삼봉 정도전의 언론관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과 현대문화: 이강수교수 정년
기념논문집. 나남출판

한국언론학회(1993.5.). 한국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탐구 I: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토착화.

한원진. 주자언론동이고, 南塘先生文集.

Levy, Lonard W.(1985), Emergence of Free Press, New York, Oxford Universiy Press.

Rogenfeld, Michel, "Free Speech, Equality and Minority Access to the Media in the US" in
Andras Sajo & Monroe Frice, Rights of Access to The Media, London, Kluwer Law
Internatioal,.

Trager, Robert & Donna L. Dickerson(1999),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21st Century,
London, ,Pine Forge Press, Inc.